

# 업무추진비도 공개 안하는 팍팍한 광산구시설공단

### 행안부 정보공개평가 3년 연속 전국 공기업 중 꼴찌 시민 알권리 무시하는 폐쇄적 조직 운영 개선 시급 공단 “홈페이지 문제…1억8000만원 들여 개선” 해명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폐쇄적인 조직 운영으로 정부의 정보공개종합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꼴찌인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투명한 운영 공개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행

정안전부는 전국 공공기관 등 593개 공기업에 대상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간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60점 이하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공기업 중 최하위 수준이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앞서 지난 2년간 행안부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도 꼴찌 등급인 최하위 판정을 받았다. 행안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광산구시설

관리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 운영 과정의 발생정보를 사전 공개해야 하는데도 3년 넘게 이를 지키지 않거나 개선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 행안부 평가 자료를 보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업무추진비 공개 등 관심정보 제공여부, 정보제공 지연처리여부, 비공개 결정의 적절성 여부, 이용자 만족도 수요파악 등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평가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전정보 공표 부분이 미흡했다”며 “기존 홈페이지 시스템상 공단에서 자체 업로드를 할 수 없어 발생된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최근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체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하고, 공단 자체적으로 업로드가 가능하

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등이 정부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원인이라는 지적 등이 나온다. 광산구의 한 주민은 “정부 평가에서 3년이나 꼴찌를 한 게 단순히 홈페이지 시스템 문제 때문이겠느냐”면서 “시민들에게 한점 의혹이 없도록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꼼꼼하고 투명하게 상시 공개하는 등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강도 높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행안부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광주 지역 공기업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광주도시공사, 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은 보통 등급을 받아 광산구 시설관리공단과 대조를 이뤘다. /최승렬 기자 srchoi@

## ‘광주 맛집’ 62개소 선정 2년간 지정…홍보 등 지원

광주시는 “관광객 유치 및 ‘미향(味響)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9기 ‘광주 맛집’ 62개소를 선정하고 해당업소에 지정서 및 지정패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제9기 ‘광주 맛집’은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5개 테마에서 6개 테마로 세분화해 선정했으며, 이번에 지정된 62개소는 올해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광주 맛집’으로 운영된다. 광주시는 ‘광주 맛집’의 음식맛과 맛, 서비스 수준, 위생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맛집 선정위원회’에서 현지실사 등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선정된 맛집 명단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선정된 업소에 대해 맛집 지정패를 교부하고,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광주 맛집 지도’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 ‘오매광주’,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에 나서고, 입식테이블 교체 및 조리장 등 시설개선 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 지원 등 재정적 혜택도 지원한다. 이달부터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제9기 ‘광주 맛집’은 물론 광주의 다양한 음식점들이 대한민국 대표맛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설연휴 대비 상수도 급수대책 마련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설 연휴기간 시민들이 수돗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 명절 대비 급수대책을 수립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하는 명절에는 수도관 압력의 변동이 심해 누수, 출수불량 등의 사고가 잦고 특히 설 연휴기간은 추운날씨로 수도시설이 동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출수 불량 등 모든 수돗물사용 불편사항에 대비해 각 정수장은 물론 시내 고지대와 사회복지시설 급수시설을 점검하고, 공사현장 주변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또 오는 29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2일까지는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급수 종합상황실 ▲민원 기동처리반 ▲수질검사반 ▲정수장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1일 28명이 24시간 비상근무에 나선다. 13일부터 2월2일까지는 동북동 수물지역을 찾는 성묘객을 수송하기 위해 선박 2척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행하며, 구멍의 준비, 청결정찰 배치, 운항 전 안전교육, 탑승 전 발열체크 및 코로나 감염예방 등 필수적인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수도 관련 불편사항은 국번 없이 121(휴대전화 이용 시 062-121)로 신고하면 신속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설 명절 성수품·축산물 안전성 검사

###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13~29일 위생검사 특별기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식재료와 시민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광주지역 재래시장, 마트, 백화점에서 유통되는 떡류, 전류, 한과류, 식용유지류 등 설 제수용품과 서부·각화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사과, 배, 시금치, 도라지, 조기, 병어 등 농·수산물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검사항목은 ▲과일류, 채소류는 잔류농약 340종 ▲고추전 등 즉석섭취식품은 식중독 원인균 ▲약과 등 과자류 및 식용유지류는 산가(식용기름 부패도) ▲수산물물은 방사능, 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 등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적합 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국 유관기관에 즉시 알려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농산물은 서부·각화농산물검사소에서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연구원은 또 13일부터 29일까지 ‘축산물 위생검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축장 위생관리와 출하 가축에 대한 도축검사도 진행한다. 연구원은 2020년부터 도축현장에 도입한 신속 검사 장비를 활용해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를 현장에서 직접하고, 미생물검사 주기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기로 했다. 관내 하루 평균 소 도축물량은 2020년 44마리, 2021년 48마리였으며, 설 명절 특별대책기간에는 각각 60마리, 55마리로 평소보다 36%, 15% 증가했다. 김정남 광주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설 명절에는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맛있는 축산물을 선물하시기를 추천 드린다”며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식재료와 유통식품 등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설 명절 대책기간에는 소, 돼지 2만5529마리를 검사하고 부적합 축산물 4건을 적발해 시중유통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식육 잔류물질과 미생물 135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공사 개인정보 관리 최고등급

### 2012년부터 10년째 최고 평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한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전 영역 만점을 받아 10년 연속 최고등급 기관에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보호대책 수립, 침해사고 대책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공사는 첫 평가를 받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줄곧 최고등급을 받아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개인정보 보호기반 마련’ 등 3개 분야 13개 지표 모두에서 만점을 받았다. 공사는 그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매월 보안진단의 날 운영,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등 체계적인 보호 활동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윤진보 사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철저한 대응을 통해 시민, 직원 등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각화도매시장, 지난해 거래실적 4350억원

### 코로나 불구 전년대비 9.4% 증가

광주시 중앙도매시장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총거래물량 2억2500만, 총거래실적 4350억원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거래가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 대비 각각 0.9%, 9.4% 증가한 수치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의 대량수집과 분산을 통해 효율적으로 농산물을 유통·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늘고 외식 자제로 인해 식자재 소비가 감소하는 등 도매시장의 농산물 반입량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화도매시장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방문을 독려하기 위해 농산물 산지로 직접 출하를 보장하는 등, 도매시장 시설 보수, 매달 청소의 날 실시 등 환경정비로 손님맞이를 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김성현 관리소장은 “안전하고 풍성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마스크 제작·배부와 주기적인 방역소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h3>미스트크리너</h3> <p>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p> 	<h3>더스트크리너</h3> <p>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p> 	<h3>전기집진기</h3> <p>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p> 
---	---	---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